

남북한 사회통합과 해외동포 모국 수학사의 역할 모색을 위한 연구: 중국동포 모국 수학사를 중심으로

조 혜 영(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목 차 ▷

- I. 서 론
- II. 남북한 사회통합 및 민족공동체 형성 방향 모색에 대한 논의
- III. 중국동포 현황
- IV. 재중동포의 남북 교류를 위한 역할 개관
- V. 통일 과정에서 재중동포의 역할에 대한 인식
- VI. 모국관 및 민족의식
- VII. 결 론

I. 서 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의 지구화와 함께 교통·통신 등의 급속한 발달로 국가 간의 교류 및 인구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경의 개념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 및 각종 통신 매체, 전화 등을 통하여 우리는 지구 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과 동시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화상 회의도 한다. 더욱이, 한반도 내에서 최근 불고 있는 남북 화해의 바람, 즉,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예술단 교류 및 장관급 회담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남북 화해의 분위기는 한민족에게 새롭게 그 위상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 내에 조성되고 있는 화해 무드와, 각 국가의 지리적 영토 개념이 희석화되는 지구화(globalization)의 경향은 한반도 남북의 사회통합에 대한 해외동포의 역할 및 비중이 커질 것임을 암시한다. 해외 한민족은 한반도 통일에 다양한 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남북한 사회 통합과 함께 세계 도처에 퍼져 있는 한민족이 네트워크를 이룰 때 진정한 한민족 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확립되는 것이다. 즉, 한민족 통일은 국지적이고 정치적인 테두리인 한반도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경 및 정치 단위를 초월하여 남북한 및 세계 도처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민족은 남한과 북한에 각각 4400만과 2300만이 살고 있으며, 현재 해외 여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동포의 수는 530만에서 560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남한 인구의 10%가 넘는 수치이다.¹⁾ 이러한 배경에서 한민족 통일 및 화합은 단지 한반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 퍼져 있는 한민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지평에서 다양한 모습을 아우르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²⁾

해외동포³⁾들은 한반도를 떠나 다양한 국가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살고 있지만, 한반도의 정치, 경제, 사회현상과 여러모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한반도 내의 남북관계 변화는 해외동포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외 한

1) 이만우, “한민족공동체(KC)의 이론 정립” 『한민족공영체』, 제7호, (1999), p.49~81.

2) 이광규, “한민족공동체(KC)와 민족문화.” 『한민족공영체』, 제7호, (1999), p.82~112.

이만우, “한민족공동체(KC)의 이론 정립” 『한민족공영체』, 제7호, (1999), p.49~81.

3) 현실적으로 해외동포의 개념은 용어상의 통일성이 없이 재외동포, 해외교포, 재외국민, 교민 등과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재외국민’이다. 헌법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재외국민’을 “우리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주국의 영주허가를 받았거나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재외국민, 해외동포, 재외동포 등이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적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국가안전기획부, 『21세기 국가 발전과 해외한민족의 역할: 체계적 교류, 협력망 구축 방향을 중심으로』, 1998, pp. 3~4). 이 글에서도 해외동포는 재외동포, 교포, 혹은 해외 한민족과 차별을 두지 않고 사용하려 한다.

민족도 그들의 모국과의 관계에 있어 어디를 모국으로 삼느냐에 따라 같은 민족 간의 대치나 불화를 경험해야 했다. 이러한 양상은 재일동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 왔다. 해방 이후 한반도의 분단과 함께, 재일동포 사회도 총련과 민단으로 나뉘어 각각 북한을 모국으로 하거나 남한을 모국으로 하여 자신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또 다른 분단을 겪어야 했다. 대다수의 재일동포가 남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좌익과 우익 등의 이념과 체제의 차이 때문에 북한을 자신의 모국으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6.25 전쟁 이후 남북 분단의 고착화로 이들은 총련과 민단으로 분리되어 각각 북과 남을 지지해 왔던 것이다.⁴⁾ 이러한 대립 양상은 한반도내의 화해 무드와 함께,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경향이다. 즉, 한반도 내의 화합이 해외동포 사회에서의 민족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해외동포 사회와의 교류 확대는 한반도 내의 통일을 매개하리라 보여진다. 특히 북한 동포와 접촉이 많은 재중동포, 재러동포와의 교류는 이를 촉진시킬 것이다. 근래에 러시아나 중국 등지로 기업이나, 교육, 종교 단체 등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예컨대, 재러동포가 거주하는 연해주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로, 재러동포, 중국의 조선족, 남한동포, 북한동포와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역에는 많은 수의 재중동포와 북한동포가 노동 인력으로 진출해 있다. 따라서 한국어 및 문화, 민족 교육 등을 통한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 정책, 동포 사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잘 이루어질 때, 연해주 거주 한민족은 남북한 통일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⁵⁾

한편 중국내 조선족은 한국 문화와 언어를 상당히 보존하고 있으며, 근래에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3만명에서 5만명으로 추정되는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합계는 10만명), 북한동포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⁶⁾ 따라서 이들 재중, 재러동포 사회를

4) Ryang, S. *North Koreans in Japan: Language, Ideology, and Identity*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7).

5) 이광규, 이종훈,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의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재외한인학회 1999년 연례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9), p. 31~71.

6) 윤인진, "국내외 탈북자의 생활실태와 지원방향," 『재외한인학회 1999년 연례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9), p. 112~131.

매개로 한 대북 관계 개선 노력을 병행하는 것은 남북한 직접 교섭이 성사되지 못했을 때,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인 민족 통일을 이루는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고 보여진다.⁷⁾ 이처럼 해외동포 사회는 남북한 사회의 관계 변화와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해외동포의 존재는 남북한의 제한된 영토와 미약한 정치 경제력으로 인해 스스로 외세를 극복하고 자주 통일을 이루기 어려운 시점에서 한민족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주체적인 통일노력을 실어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모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⁸⁾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재외동포가 가지고 있는 고국관 및 통일관, 민족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들이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국과의 연계성, 분단된 고국에 대한 인식,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해외 한민족이 한반도 통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 퍼져 있는 해외 한민족을 포괄하는 한민족 화합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해외 한민족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립하고 한민족 공동체 형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민족' 및 해외동포들(Diasporas)은 현재의 사회과학 담론에서 어떻게 접근되고 있는지를 다루겠다. 이러한 배경 지식과 함께, 기존의 논의를 통하여 해외 한민족이 통일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그 후, 이와 관련하여 수집된 재외동포의 의견을 분석해 보겠다.

이 글에서는 재외동포 중 주로 중국동포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1992년 한·중수교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동포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⁹⁾ 이들은

7) 이종훈, "중양아시아 고려인의 연해주 재이주가 갖는 정치 경제적 의미," 『재외한인 연구』, 제7호, (1998), p. 121~130; 이광규, "통일시대 민족의 자산 해외동포" 『자유공론』 (1994. 3), p. 258~267.

8) 윤인진, "남북한 사회통합과 재외동포의 역할," 『통일문제연구』, 제12권 1호, (2000), p. 5~24; 윤인진, "열린 민족주의와 한민족 공동체, 민족번영 새모델," 『통일한국』 (2000. 8), p. 28~31.

9) 참고로 한국을 찾는 중국동포 모국 수학생 현황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82년 1명, 1983년 2명, 1984년 6명, 1985년 8명, 1986년 5명, 1987년 11명, 1988년 10명, 1989년 15명, 1990년 21명, 1991년 15명, 1992년 16명, 1993년 9명, 1994년 31명, 1995년 17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친숙도가 높고, 북한 사회에 대해서도 친숙하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살펴보는 것은 한민족 통합을 위한 방향성 모색에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중국동포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우선 2000년 10월과 11월에 걸쳐 한 연구기관에 의해 실시된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무료 컴퓨터 교육장에서 재중동포 모국 수학생들의 컴퓨터 교육과정을 참관하였고 이 교육장에서 알게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2001년 2월과 3월에 이 중에서 몇 학생과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국동포들의 인터넷 사이트(www.koreanchinese.com)를 방문하여, 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선족의 위상 및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조선족의 인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토론 진행과정을 지켜보았다. 특히 인터넷상의 토론은 익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중국동포의 위상 및 한국과의 관계, 혹은 한국인과 중국동포 사이에 생기는 오해와 편견에 대한 진솔한 의견들이 많아 보였다. 본 연구는 행위자(actor)로서 해외동포에 의해 구술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러티브나 표현된 글을 분석의 텍스트로 사용함으로써, 재외동포의 통일관 및 민족의식에 대한 기존의 양적 연구¹⁰⁾가 보여왔던 지극히 단순화되고 일반화된 결론을 보다 생생한(vivid) 사례로 보충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명, 1996년 74명, 1997년 70명, 1998년 55명, 1999년 328명, 2000년 562명으로 한중 수교후 그 수가 급속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99년 이후로는 중국 동포 모국 수학생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오는 학생들의 수를 넘어서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에서 펴낸 『2000학년도 모국 수학생 명부』를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비공식적인 통계이지만 한국에 체류하는 조선족의 수는 15에서 2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조선족 인구의 10%에 이른다.

www.koreanchinese.com

- 10) 해외동포의 통일관이나 민족의식에 대한 양적 연구로는 평화문제연구소 및 한미 교육개발원의 『미주동포들이 보는 조국: 통일문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1992), 문애리의 “재미교포 여성의 한국문화관과 통일외식” (1995), 김일평의 “민족통일과 재미동포” (2000), 임채완의 “중아시아 고려인들의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성향” (2000), 오태근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재외 한인의 역할” (1998), 공보처의 『광복 50주년 한민족 공동체 의식조사』 (1995) 등이 있다.

II. 남북한 사회통합 및 민족공동체 형성 방향 모색에 대한 논의

1. 민족 개념에 대한 논의 및 한민족 정체성 인식 정도

해외동포 및 그 자녀 세대들을 한민족이라는 범주로 이해하고, 남북 사회통합을 매개할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족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및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 정체성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 세계 도처에 퍼져 있는 한민족과 남북한을 통합하기 위한 논리로서 민족의 동질성에 대한 주장들이 제기되어왔다. 이들 논의들은 주로 민족의 혈통, 역사, 문화의 '공유' 및 '단일성' 등 객관화된 특질을 근거로 한민족이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¹⁾ 이러한 시각은 주로 민족 개념의 원초론적, 초역사적 성격에 토대를 두고 있다. 민족 개념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민족의 영속적 성격을 강조하는 '원초론'(primordialism)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을 근대화의 부산물로 간주하는 '도구론'(instrumentalism)이다.¹²⁾ 전자는 인종적 공동체의 영속성에 주목하면서 민족주의가 조상, 종족, 종교, 언어, 영토라는 원초적 유대에 기초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후자는 민족주의는 영원한 실체가 아니며 근대화와 도시화라는 특정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발현한 이데올로기라고 간주하며, 그 역사성을 강조한다. 원초론적 시각은 객관주의적 민족이론으로 이어지며, 그것은 언어, 공통의 문화유산, 종교, 관습 등과 같은 것들을 민족의 기초를 형성하는 객관적 특질로 본다. 민족은 국가에 선행하며 공통의 역사적 가치와 사회적 유대에 기초

11) 김일평, "민족공동체 발전과 해외동포" 『광복 50주년 기념 세계 한민족 통일문제 토론회, 통일 번영의 한민족 시대 전망』. (통일원, 국민생활 체육 협의회, 1995), p. 107~138; 이정희, "남북통일과 해외동포의 역할," 『교포정책자료』, 제48집, (1994), p. 46~69; 이광규, "한민족공동체(KC)와 민족문화," p 82~112.

12) Smith, A. D. "The Politics of Culture: Ethnicity and Nationalism." Tim Ingold, ed., *Companion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Humanity, Culture and Social Lif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4), pp. 706~733.

를 둔 실재라는 것이다. 반면 도구론적 시각은 주관주의적 민족 이론과 연결되며, 이것은 민족공동체에 기꺼이 자신을 귀속시키고자 하는 민족 성원의 주관적 의지가 민족을 만든다고 믿는다.¹³⁾

민족은 초역사적이고 자연적 실재가 아니라 역사적 변화에 열려있는 사회적 실재이다. 따라서 단순히 객관적 특질들의 공유를 강조하며 한민족의 결속을 외치는 것은 과거 지향적이고 정태적인 민족 개념으로 회귀될 수 있으며 체제유지를 위한 보수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해외 각 곳에 퍼져 있는 한민족이 처해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 정치 상황, 이민의 역사 등이 동질적이지 않은 만큼, 이들이 지닌 실질적인 민족관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즉, 한국인과 해외 한민족들의 민족의식 및 고국관 등의 개괄적인 모습은 동질적일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 및 표현양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공보처에서 실시한 『광복 50주년 기념 한민족 공동체 의식조사』에 따르면 한민족이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에 대한 조사 항목에서 해외동포들은 한국 내에 거주하는 성인들보다 한민족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성인 중에는 남자, 고연령 층일수록 한민족이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서울: 소나무, 1999); 윤인진, “남북한 사회통합과 해외동포의 역할,” p. 5~24.

〈표1〉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동일시정도

*심리적 동일성~ 한민족 느낌이 드는 정도									
문) oo님은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자신이 '한민족 (고려인/한인)'이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자주 하십니까?									
결과	한국 (N=1,000) %		미국 (N=400) %		일본 (N=400) %		독립국가연합 (N=400) %		
매우 자주 한다	17.6	75.5	73.6	95.0	35.8	81.6	40.9	83.0	
가끔 한다	57.9		21.4		45.8		42.1		
거의 하지 않는다	21.8	24.5	3.2	4.0	12.2	18.4	7.5	15.5	
전혀 하지 않는다	2.7		0.8		6.2		1.5		
모름/무응답	0.0		1.0		0.0		1.5		
계	100.0		100.0		100.0		100.0		

출처: 공보처 『광복 50주년 한민족 공동체 의식조사』, p. 136

한편, 한국 성인 남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한민족이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에 대해서 남자는 24.1%가 '매우 자주 한다'라고 대답한 반면 여자는 11.3%만이 한민족이라고 매우 자주 느낀다고 대답하고 있다. 또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한민족 느낌이 드는 정도가 21.5%가 매우 자주 느낀다고 대답한 반면, 40대가 19.6%, 30대가 14.6%, 20대가 15.9%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한민족으로서의 심리적 동일성을 느끼는 정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¹⁴⁾

비록 단순화되어진 수치이지만 한민족으로서의 동일시 정도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에 따라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나 민족의식 등 추상적 이념으로서 한민족을 묶어내기보다는 한반도 및 해외 각 곳에 퍼져 있는 한민족들이 형성하고 있는 실질적인 네트워크 및 개인 주체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하게 한민족의 혈통적 단일성, 언어, 역사, 문화의 공유를 부르짖는 것은 현실적인 네트워크 형성 방안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단지 정치적 구호 혹은 공허한 이념으

14) 공보처, 『광복 50주년 한민족 공동체 의식조사』 (서울: 공보처, 1995).

로서의 민족주의로 그칠 수 있다. 이것보다는 해외 각 곳에 퍼져 있는 한 민족의 각기 다른 이민사와 현재 거주국에서의 특수한 존재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이것이 한반도와의 교류에서 어떤 실질적 이득을 줄 수 있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과 이스라엘 민족공동체의 네트워크에서 보여지듯이 경제적 이익 등 실질적 이득을 떠난 맹목적인 민족 의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¹⁵⁾

이스라엘의 유대인은 세계적으로 1,800여만 명이 퍼져 있는데, 미국에 580만명, 이스라엘 본국에 480만명, 유럽에 150만명, 구소련에 200만명이 분포하고 있으며, 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민성(Ministry of Immigration)과 외무성의 세계 유대인국(World Jewish Affairs Division)을 통해 해외 유대인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이들은 친가, 외가, 조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유대인이고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이주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급 인력이 이주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전세계 유대인들은 세계 유대인 총회(WJC), 세계 시오니스트(WZO), 유대인협회(JA)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본국 지원 및 유대인의 본국 이주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본국에 대한 경제 지원이 활발한데 United Israel Appeal, United Jewish Appeal 등 200여개의 모금 조직이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송금을 하고 있다. 미국내 유대인은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나 사회 각 분야에서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데, 포춘지 선정 100개 기업주의 3분의 1, 상원의원의 10%,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의 60%를 점유하고 있다.¹⁶⁾

한편, 세계 136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화교의 숫자는 약 3,000만 명에 이른다. 대만의 2,100만명을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며, 거대한 경제력으로 동남아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화교들은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보완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 세계의 화교 조직은 약

15) 박승록, “한민족공동체(KC)를 위한 경제권 구축,” 『한민족 공영체』, 8호, (2000), p. 52~82.

16) 위의 글 pp. 75~76.

9,500여 개가 되는데, 아시아에 6,500개, 미주에 약 2,500개가 있다. 현재 대중화경제권은 대만의 제조 기술, 싱가포르의 마케팅 및 서비스, 중국의 노동력, 북미의 전문인력과 기술력이 전 세계 화교자본과 결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대한 경제 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화교들은 ‘국제화교협회’, ‘세계화상대회’ 등 전 세계의 중국계 기업간 기구와 회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연결하는 인터넷망을 운영하여 화교들간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 화교들간의 경제권 형성 실태를 보면, 1978년 중국의 개방 이후 정부는 적극적으로 화교 자본을 유치하고 있으며, 1989년 천안문 사건에 따른 서방의 경제 봉쇄를 탈피하기 위해 전세계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또, 화교 투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발표하고, 각 지방정부도 조세감면 등 독자적인 우대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힘입어 1983년에서 1994년 간 약 700억 달러의 화교 자본이 유입되어 전체 외자 유입의 3분의 2를 차지하였다. 지금까지 화교는 중국에 10만개 이상의 합작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기술과 자본을 이전하였다.¹⁷⁾

위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통한 실제적 이득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은 어떻게 모색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혈연이나 혈통, 문화의 동질성 등 객관적 특질들을 강조하다 보면 배타적인 민족공동체가 될 수 있다. 즉, 혈통과 동질성을 강조하는 시각은 한인과 비한인 사이에서 출생한 혼혈아를 배제하고,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민자의 자녀 세대들이나,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예컨대 입양아나 이민 후속 세대들을 배제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또한 객관적인 조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주관적으로 한인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설명하지 못한다.¹⁸⁾ 따라서 좀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재외동포를 한민족 공동체에 귀속시키고 이들이 한반도의 남북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및 남북한 주민의 민족적 동질성이나 혈통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성 속에서 조화와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기존의 혈통과 동질성을 강조하는 민족 개념은 민족 문화와의 유

17) 위의 글.

18) 윤인진, “남북한 사회통합과 재외동포의 역할,” 『통일문제연구』, p. 5~24.

대가 강한 1세나 2세들에게는 적합할지 모르나, 모국과의 유대가 약하고 거주국의 사회 문화에 동화된 이민 3세, 4세에는 적합하지 않다.¹⁹⁾

2. 해외동포에 대한 이해의 틀: 초국적주의(Transnationalism)

근래의 이민자 연구 및 민족 집단에 대한 연구 동향은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정보, 문화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민 집단과 모국과의 교류 및 네트워크에 비중을 두고 있다. 최근에 이민자들은 국경 및 국적을 초월하는 삶을 살며, 그들의 고국과 강한 유대를 유지하는 경향이다. 이는 그들의 고국이 현재 주재국과 지리적으로 먼 위치에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새로운 생활양식을 설명하기 위해, 일군의 사회 과학자들은 초국가적 혹은 초국적적(transnation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초국적주의(transnationalism)는 이민자들이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경계를 넘나드는 삶을 사는 사회 현상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민자들은 국경을 가로질러 가족, 경제적, 사회적, 조직적, 정치적 관계를 발전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이민자들의 고국과 현재 거주국 사이의 다중적 관계가 초국적주의(transnationalism)의 핵심 요소로 고려되어지며, 이러한 이민자들(immigrants)은 transmigrants라고 불린다. 따라서 과거에는 이민자는 고국을 떠나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여 고국과의 유대를 끊은 사람들로 개념화되었으나, 근래에는 이민자들이 고국을 떠나 새로운 사회에 정착을 하였어도 지속적으로 고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²⁰⁾

19) 윤인진, “남북한 사회통합과 재외동포의 역할,” p. 5~24; 윤인진, “열린 민족주의와 한민족 공동체, 민족번영 새모델,” p. 28~31.

20) Glick Schiller, N., Basch, L. G. and Blanc-Szanton, C. “Towards a Definition of Transnationalism: Introductory Remarks and Research Questions.” N. G. Glick Schiller, L. G. Basch, and C. Blanc-Szanton, eds., *Towards a Transnational Perspective on Migration: Race, Class, Ethnicity, and Nationalism* (New York: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992), pp. i x~xv; Glick Schiller, N., Basch, L. G. and Blanc-Szanton, C. “From Immigrant to Transmigrant: Theorizing Transnational Migration.” *Anthropological Quarterly*, Vol. 68, No. 1, (1995), pp. 48~63; Glick Schiller,

근대 민족국가 건설과정은 통치 엘리트 세력이 지배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에 대한 집단적 기억(collective memories)과 역사적 담론(historical narratives)을 구성하여왔던 정치과정이었다. 즉, 국가라는 지리적 영토 안에 단일한 국민이 거주하고, 이들은 역사, 문화, 언어를 공유하고, 단일한 정부에 충성한다는 신화를 창조하여왔다.²¹⁾ 민족국가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화가 고정되어 있는 국가 경계를 암시했던 반면, 최근에는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영토밖에 살고 있는 자국의 이민자 집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민족국가의 본질을 재개념화하게 한다.²²⁾ 즉, 다양한 이민자 집단이 고국과 여러 가지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주목함으로써, 초국적주의는 민족공동체를 특정한 지리적 영토에 국한시키지 않고, 해외 민족까지 자국민에 포함하여 국경을 초월하는 가상적 공간(transcendental territory)으로 민족국가(nation~states)의 영역을 확장한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여행, 유학, 이민, 망명 등)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따라, 특정 장소나 국가, 문화, 사회를 하나의 결속되어진 단위로 보는 관점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등장한다. 즉, 국가적, 지리적 경계는 더 이상 문화를 정적인 특질들의 총합으로 나타내지 못한다.²³⁾ 이러한 초국가적 상황은 타문화간의 역동적 교류를 증진시킨다. 이

N. "Citizens in Transnational Nation~States: The Asian Experience." K. Olds, P. Dicken, P. F. Kelly, L. Kong and H. W. Yeung, eds., *Globalisation and the Asia~Pacific: Contested territor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 pp. 202~218; Glick Schiller, N. "Transmigrants and Nation~States: Something Old and Something New in the U.S. Immigrant Experience." Charles Hirshman, Philip Kasinitz, Josh DeWind, eds.,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American Experienc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99), pp. 94~119.

21) Glick Schiller, N., Basch, L. G. and Blanc~Szanton, C. "From Immigrant to Transmigrant: Theorizing Transnational Migration." *Anthropological Quarterly*, pp. 48~63.

22) Glick Schiller, N. and Fournon, G. "Transnational Lives and National Identities: The Identity Politics of Haitian Immigrants." Michael Peter Smith and Luis Eduardo Guarnizo, eds., *Transnationalism from Below*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1998), pp. 130~161.

23) Gupta, A. and Ferguson, J. "Beyond "Culture": Space, Identity, and the

상황에서 이민자들은 고국을 떠났어도, 현재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상징적 혹은 실질적으로 고국과의 관련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²⁴⁾ 교통 통신의 발달은 이들 이민자들로 하여금 고국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한다. 더욱이, 외교 및 무역 관계의 에이전시들은 고국과 이들 이민자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²⁵⁾ 따라서 이민자 집단(Diaspora)은 현재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사회와 그들의 고국에 대해 이중적 관계(doubled relationship) 혹은 이중의 충성심(doubled loyalty)을 갖게 되는 것이다.²⁶⁾ 이민자들은 고국과 그들의 현재 주재국을 연결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본, 노동, 기술, 미디어의 초국가적 흐름과 함께, 이민자 사회는 국가적 경계 및 '남'과 '우리'를 구분지어 왔던 뚜렷한 경계에 대해 문제시한다.²⁷⁾ 이러한 초국가적 흐름은 특정 문화가 고정된 영역 안에 묶여져 있다는 기존의 개념에 도전한다.²⁸⁾ 이러한 초국적주의는 이민자들이 모국과 거주국 사이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다중적이고 동시적인 관계들, 예컨대,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가족적 관계들을 망라하며, 모국과 거주국에 동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민족 정체성은 다중 정체성의 형태를 띤다. 즉, 해외동포의 국적 혹은 시민권과 민족성은 별개의 존재인 것이다.²⁹⁾

Politics of Difference." *Cultural Anthropology*, Vol. 17, No. 1 (1992), pp. 6~23.

24) Clifford, J. "Diasporas." *Cultural Anthropology*, Vol. 9, No. 3, (1994), pp. 302~338; Safran, W.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1991, Spring), pp. 83~99

Tölölyan, K. "Rethinking Diaspora(s): Stateless Power in the Transnational Moment." *Diaspora* Vol. 5, No. 1 (1996), pp. 3~36.

25) Portes, A. and Rumbaut, R. G. *Immigrant America*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26) Lavie, S. and Swedenburg, T. "Introduction." S. Lavie and T. Swedenburg, eds., *Displacement, Diaspora, and Geographies of Ident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6), p. 14

27) Sharpe, J. "Is the United States Postcolonial? Transnationalism, Immigration, and Race." *Diaspora*, Vol. 4, No. 2 (1995), pp. 181~199.

28) Chuh, K. "Transnationalism and its Pasts." *Public Culture*, Vol 9 (1996), pp. 93~112; Kearney, M. "The Local and the Global: The Anthropology of Globalization and Transnationalism."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24 (1995), pp. 547~65; Lavie, S. and Swedenburg, T. "Introduction." pp. 1~25.

이러한 이해의 틀을 가질 때, 재외동포는 한국국적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국과 여러 가지 형태로 관련을 맺어 나가고 있으며, 한민족의 향방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특히 이들의 제3자적 위치는 분단된 남과 북의 교류를 매개하는 데 여러 가지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의 틀을 가지고 재중동포가 통일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보기 위해 중국동포의 일반적인 개황을 살펴보겠다.

Ⅲ. 중국동포 현황

1999년 외교통상부 발행, 『재외동포 현황』 통계에 따르면, 한국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주요 국가 및 인구수는 다음과 같다. 중국에 204만여 명(2,043,578), 미국에 205만여 명(2,057,546), 일본에 66만여 명(660,214), 독립국가연합에 48만여 명(486,857) 등으로 이들 주요 국가 외에도 동남아시아,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 걸쳐 560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³⁰⁾ 이 수치는 규모 면에서 중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이며, 남한인구 4400만여 명과 북한인구 2300만 명을 합친 본국 인구 대비 비율은 이스라엘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수치이다.³¹⁾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은 그들이 이주 해간 시기, 이민 세대, 주재국의 소수민족정책에 따라, 한국 문화와 언어를 보유하고 있는 정도가 다르며, 그에 따라 다양한 경험과 민족 의식을 형성해 왔다.

중국으로의 한인의 이주는, 청조 말기에 국경 통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1860년대 대홍작을 맞은 평안도, 함경도 지역 농민들이 대거 간도 지방으로 이동해갔다. 1883년에 청-조선간에 「길림 조선 상민 무역 지방규약」을 체결하고, 1885년에 두만강 이북 지구를 한인 개간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한인 이주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한인들은 중국인이나

29) 윤인진, “남북한 사회통합과 재외동포의 역할,” p. 5~24.

30)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통상부, 1999).

31) 윤인진, “해외동포의 포용 및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통일로』 (1999. 1월), p. 39.

만주족이 사용하지 않는 늪지대나 황무지를 개간하여 벼농사를 지어 만주 일대에 쌀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국인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한인들은 개간한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이나 머슴으로 전락하고 만다. 한일합방이 되자 토지를 잃은 농민들과 우국지사들이 활동의 근거지를 찾아 만주로 이주하였고, 이에 따라 만주 거주 한인인 1910년에 10만 명을 넘어서고, 1916년에는 20만 명, 1921년에는 30만 7,0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이주한 우국지사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여 청산리대첩, 봉오동전투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³²⁾

1932년 일제의 괴뢰 정부인 만주국이 건국되자 이곳에 거주하던 한인들은 일본의 직접적인 예속 하에 들게 되고 무력에 의한 항일투쟁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만주의 황무지 개간과 지하활동을 하는 독립운동가, 한인 공산당 세력을 감시하기 위해 1934년까지 한인 10만 호 이주 계획을 수립하여 주로 전라도와 경상도 출신 농민을 대거 이주시키면서 이 지역의 한인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해방이 되면서 만주 지방에 거주하던 180만 명의 한인들 중 80여만 명이 귀국했으나 1947년 당시 약 100만 명이 귀국하지 않고 잔류하였다. 이들은 중국의 국·공내전 시 공산당에 협력하여 공을 세웠고, 한국전쟁시에는 다수가 중국 의용군으로 참전하였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52년 9월 연변에 조선족 자치구를 세우게 되었고 이는 1955년 자치주로 개칭된다. 1958년 9월에는 길림성 장백 조선족 자치현이 건립되었으며, 흑룡강성, 요녕성, 내몽골 자치구 지역의 조선족 거주 지역에도 인구 규모의 다소에 따라 30여 개의 민족향과 100여 개의 민족 자치촌이 건립되었다.³³⁾

중국의 조선족은 중국의 56개 민족 가운데서 최고의 교육·문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20여 년의 이주과정 속에서도 민족어와 문화전통을 보존하였다. 그것은 중국 조선족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긍지와 농경 생활 위주의 집거 생활을 하면서 민족학교를 세워 민족문화 보존에 힘써왔고,

32) 국가안전기획부, 『21세기 국가 발전과 해외한민족의 역할: 체계적 교류, 협력망 구축 방향을 중심으로』; 이광규, “한민족공동체(KC)와 민족문화,” p. 82~112.

33) 국가안전기획부, 『21세기 국가 발전과 해외한민족의 역할: 체계적 교류, 협력망 구축 방향을 중심으로』 (서울: 국가안전기획부, 1998).

주재국 당국의 소수민족과 그들의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의 결과였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족들이 대량으로 도시로 진출하게 되었다. 1982년부터 1990년 사이에 흑룡강과 길림에서 9만 명, 그 후 한국 회사들의 중국 진출과 관련하여 약 20만 명이 도시로 진출하였다. 한국과의 경제 교류, 친척 방문 등의 인적 교류 급증 및 1992년의 국교 수립은 중국 내 조선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지만, 한국인과의 교류에서부터 오히려 반한감정이 격화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였다.³⁴⁾ 또한 조선족 농민들의 도시 진출은 인구의 분산, 조선족 집단 거주 지역 축소로 조선족 민족 교육의 황폐화, 조선족 민족 공동체의 존속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시되고 있다.³⁵⁾

IV. 재중동포의 남북 교류를 위한 역할 개관

해외동포가 남북 교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아직까지 통합된 방향이나 이론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해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들의 상황과 동포 사회 형성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통합된 방향을 제시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와 인접해 있으며, 많은 동포들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중국동포 사회는 한반도의 남북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 장기적인 우호관계를 맺고 있고, 군사적·경제적 도움을 얻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의 역할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교포보다 남북 교류에 있어 그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다.³⁶⁾

중국동포의 역할 중 중요한 것으로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매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6.25이후 적대 관계에 있던 남북 관계는

34) 방수옥, “남북한관계의 전개와 재중동포의 역할,” 『경남대 동북아연구』, 4권 (1998), p. 175.

35) 박동준, “한민족공동체(KC)를 위한 교육방안,” 『한민족공영체』, 8호 (2000), p. 13~51.

36) 방수옥, “남북한관계의 전개와 재중동포의 역할,” 4호, (1998), p. 186~190.

1970년대에 대화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였는데, 1971년 8월 남북 적십자 회담 및 1972년 7월의 7.4 남북공동성명을 거쳐 1980년대, 1990년대의 대화의 길이 열리면서 2000년대 남북정상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1971년 8월에 있었던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제기된 후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1985년 9월에 이산가족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이 실현되었으나 그 숫자는 2천만 이상의 이산가족의 한을 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85년 9월 20일 남북 쌍방의 이산가족 방문단이 판문점을 통과하여 각기 서울과 평양 방문 길에 올라 평양에 간 방문단에서 35명이 북에 있는 가족 및 친척 41명과 상봉하고 서울에 온 북한 측 방문단 가운데 30명이 남한의 가족 친척 51명과 상봉하였다.³⁷⁾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이산가족이 가족 및 친척의 생사 여부나 안부를 모르는 상태이다. 통일 이전의 독일이 분단 상태에서 친척 방문이 빈번히 이루어졌으며, 대만이 1987년부터 '탐친'이라는 이름으로 대륙의 친척 방문을 허락한 이후 현재까지 약 3백만 명이 본토를 방문한 것과 비교해 보면, 현재까지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³⁸⁾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제3국을 통한 간접 교류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로 인정되고 있으며, 해외동포들의 역할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중국 연길에서도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동포 사회에서는 연변 라디오 방송국 해외 연락부, 연길 이산가족 소개소가 현지 정부의 승인 아래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하고 있다. 연변 라디오 방송국 해외 연락부에서는 1993년 1월 1일부터 이산가족찾기 방송을 정식으로 시작하였고, 연길 이산가족 소개소는 자치주정부의 허락을 받아 1993년 2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 소개소는 북한을 찾는 중국동포들에게 부탁하여 이산가족의 소식을 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80명의 이산가족을 찾아주었다.³⁹⁾ 특

37) 서일범, “남북한 이산가족 교류에 있어 해외동포의 역할,” 『교포 정책 자료』, 제48집 (1994), p. 86~100.

38) 유관지, “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 『변화된 세계 새로운 통일론』 (평화문제연구소, 한스자이델 재단, 1994), p.226~234.

39) 방수옥, “남북한관계의 전개와 재중동포의 역할,” p. 187

히, 북한과 중국의 전통적인 선린관계를 이용하여 민간 차원에서의 북한과의 교섭을 진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국을 통한 남북한 이산가족 교류를 승인하게 하는 것도 추진해 볼 만하다.⁴⁰⁾ 이러한 이산가족 상봉은 이들 동포가 갖는 국적상의 중립성을 통하여 가능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동포 사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⁴¹⁾

또한 북한 사회를 개방하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재중동포 사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1만명에서 2만명의 중국동포가 북한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에 한국의 국제적 상황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⁴²⁾ 중국 흑룡강 신문사 부사장인 김충일은 “재중교포들의 경우 역사적인 원인으로 북한과 관계가 밀접했고 지금도 서로간에 교류와 방문이 계속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이복을 설득시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가는 데 우세하다”고 말한다.⁴³⁾ 중국 연변대학의 고경수도 “중국에는 소위 친북 단체도 없으며 친남 단체도 없다. 우리는 반드시 공정한 입장에서 민족의 화해를 촉진하는 일만 해야 한다는 자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⁴⁴⁾ 이들 해외동포는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처한 상황에서도 규모가 작긴 하지만 남북간 인적 교류를 증개하고 지속시키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상당기간, 구체적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남북간 직접교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남북한의 이질적인 시각을 절충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⁴⁵⁾

경제 교류에 있어서도 중국동포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현재 직접 교역에 어려움이 큰 만큼, 간접교역에 의존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중국동포의 역할이 부각된다. 특히 북한·중국 국경지대에는 국경무역의 통상구가

40) 서일범, “남북한 이산가족 교류에 있어 해외동포의 역할,” p. 86~100.

41) 이종철, “동포사회 통합시각에서 이산가족문제 봐야한다,” 『통일한국』, (2000. 8), p. 40~43.

42) 방수옥, “남북한관계의 전개와 재중동포의 역할,” p. 187

43) 김충일, “해외동포 사회에서 본 한반도 통일,” 『분단 50년, 한반도 통일과 해외동포의 역할』 (평화문제연구소, 한스자이델 재단, 1995), p. 40.

44) 고경수, “두 개의 모국과 중국동포,” 『한민족포럼』, (1999. 11), p. 66~67.

45) 이종훈, “남북한 인적교류에 있어 해외동포의 역할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분단 50년, 한반도 통일과 해외동포의 역할』 (평화문제 연구소, 한스자이델 재단, 1995), p. 111~130.

있으며, 양국은 이러한 통상구를 통해 국경 무역을 의욕적으로 번성시키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전통적 경제 협력 대상이던 구 소련이 몰락하고 그에 따라 러시아 경제가 침체함에 따라서 북한의 교역 상대국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조선족이 양국간 국경무역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북한 간에는 중국동포의 북한내 친지 방문, 북한동포의 중국내 친척 방문, 경제 교류에 수반된 상호방문 등 다양한 형태로 상당 수준의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⁴⁶⁾

학술, 예술, 종교 단체들의 행사를 통해서도 남북한 인사들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연변 대학에서는 조선학 국제학술세미나(1989, 1991) 등 여러 차례의 학술 세미나를 통해 남북간 간접 교류를 추진해왔다.⁴⁷⁾ 끝으로 재중동포는 통일 후를 대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중국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살아왔던 재중동포를 통해 북한동포의 의식과 가치관, 행동양식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통일 형태를 취하든 간에 우리는 이들 재중동포와 유사한 행동양식을 가진 사람들과 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은 통일과정 및 그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⁴⁸⁾

위에서 남북한 사회통합과 관련된 재중동포의 역할에 대하여 수행된 연구를 통하여 그 가능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재외동포의 통일과정에 대한 기여를 논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 내에서 그리고 한국인의 입장에서 재외동포들을 어떻게 개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치중해 있었다. 통일이 장기적인 과정이고 통일 이후의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도 장기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청년세대가 통일 및 그 이후 사회통합과정에 주요 참여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자라나는 세대인 청년세대의 입장에서 남북 교류를

46) 방수옥, “남북한관계의 전개와 재중동포의 역할,” p. 188.

47) 이동욱,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 『변화된 세계, 새로운 통일론』, (평화문제 연구소, 한스자이델 재단, 1994), p. 219~225.

48)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제10장, 교민정책의 현황과 방향,” 『교포정책자료』, 제51집, (1995), p. 101~127.

위한 역할 인식 및 고국 및 민족관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동포 모국 수학생들은 북한 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 친숙하고, 나아가 남한 사회에 와서 일정기간 체류함으로써 남한 사회의 특성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회의 엘리트 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남북한 관계를 중재하고 매개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제기된 재중동포 및 재외동포의 통일과정 및 남북교류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관련하여 재중동포 모국 수학생의 개별적인 생각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재외동포 개개인은 통일준비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가 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고국 및 민족, 통일에 대한 견해를 세부적으로 들어보는 것은 의미 깊은 일이다.

V. 통일 과정에서 재중동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중국동포 모국 수학생들은 1999년 이후로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최근 몇 년 동안에 두드러지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은 상황이다.⁴⁹⁾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나 특성(남북한에 친척의 유무, 고국관, 통일관, 정체성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동포 모국 수학생의 고국관이나 통일관에 대한 일반화를 지향하기보다는 질적 연구의 장점을 살려 피면담자의 의견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⁵⁰⁾ 또한 기존에 제기된 일반적인 재중동포의 통일과정에서의 역할 및 고국·민족관에 대한 연구담론과 관련하여 개별 행위자의 인식은 어떤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주요 제보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되, 관련되는

49) 국제교육진흥원. 『2000학년도 모국수학생 명부』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2000).

50) 질적 연구는 일반화를 지향하는 연구가 아니며, 일반화가 연구방법의 유용성을 살리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양적 연구에서는 표집의 크기를 늘림으로써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질적 연구에서는 사례 수를 무작정 늘림으로써 참여관찰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연구의 질이 떨어진다. 질적 연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용환. 『질적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1999) 참조.

의견이나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부제보자들의 의견도 보충한다.

주요 제보자로 선정된 박군은 연변 출신으로 1998년에 한국에 와서 한 공학 계열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중국동포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 강좌에서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기타 조선족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20대 중반의 나이로 그는 현재 대학원을 그만두고,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학부과정에 입학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이다. 그를 만나 인터뷰를 하기 위해 신촌으로 나갔다. 30대 중반의 아줌마가 되어버린 연구자에게 이제 신촌거리는 뭔가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졌다. 흰 얼굴에 안경을 끼고 마른 체구에 쏘니 비디오 카메라 세트를 어깨에 매고 등에 배낭을 짊어진 채 나온 박군은 연구자보다 훨씬 신촌 거리에 어울리는 느낌이었다. 조선족과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박군은 행사를 비디오에 담고 인터넷 사이트에 동영상으로 올려놓기도 한다. 중국에서 컴퓨터그래픽을 공부해서 그런지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데 능숙해 보였다. (텔레비전 코미디에 등장하는 스테레오타입으로서의 중국 연변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는 중국동포들에 대한 이해를 단순화시키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신촌거리에서 연구자는 조용하게 얘기를 나눌 만한 곳으로 어디가 좋은지 찾을 수 없었다. 지난주에 만났던 조선족 여학생과 갔던 곳 역시 음악소리가 시끄러웠다. 박군은 자기가 아는 곳이 있다며, 그리로 나를 안내하였다.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문화공간이라며, 거기서는 세미나도 하고 책도 보고 음료수는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시간제로 돈을 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찾는다고 했다. 신촌에도 있고 대학로에도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학문화에 있어서는 연구자보다 더 '한국적'인 것들에 익숙해 보였다. 박군을 따라 그 곳으로 갔지만 빈자리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는 한 카페로 갔다. 역시 적응하기에 힘든 시끄러운 대중 가요와 팝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냥 자리를 잡고 앉았다. 주위에는 주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고, 여자들끼리 모여 앉아 담배를 피거나, 적극적인 감정 표현을 하는 남녀도 보였다. 한국 사회 내에서도 더욱이 신촌이라는 특정 지역 안에서조차 연령에 따른 이질적인 문화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느끼며, 박군의 통일에 대한 견해와 그와 관련된

중국동포 및 연변 조선족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먼저 박군은 중국 동포가 통일을 매개하는 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한이 북한 사회를 잘 모르고, 그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사회에 대해 친숙하며 남한 사회도 접해 본 조선족 사회가 두 극단을 매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 사회가 만나 극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경계하면서 다음의 예를 들고 있다.

… 지난번에 훈춘에서 한국인 피해 사건 있었어요. 연변 훈춘에서 한국인 부부가 다방을 운영하는데 살해 피해를 당해서 조사해보니 북조선 20대 청년들이 여자 둘, 남자 하나, 조선족 하나 모두 네 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자 두 명이 다방에서 아르바이트했어요. 한국 사람들 보니까 잘 사는 게 많잖아요. 사모님 보니까 금도 있고 뭐도 있고, 금가락지 끼고, 뭐 끼고… 근데 자기네는 보니까, 한 달에 백원씩 밖에 못 받는대요. 북조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선족이면 한 달에 삼백 원씩 받거든요. 그 백 원 벌어서 북조선가면 잘 살 수 있겠는데, 그 연변이라는 사회에서 살자면 백 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 갖고 합심해 갖고, 조선족이 택시 몰았거든요. 합심해 갖고 뛰어들어가서 죽이고 금은보화 같은 거 다 뺏어 가지고 달아났대요… 조선족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 가지고 몇몇이 피해 봤잖아요. 그것이 똑 같아요. 북조선하고도 갑작스러운 통일을 하게되면 그런 사건, 사회적인 문란이 꼭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문화적인 교류가 있어야 하고, 그런 전제하에 경제적인 토대가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연변이 그런 피해 사건이 없는 게 뭐냐하면, 지금은 연변이 우리가 먹고 살 만큼 다 있다. 한국이라는 거는 별로 부럽지 않다. 그냥 나도 한국 갔다오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너네가 가진 돈이 부럽지 않다 이거죠. 근데 없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부럽죠. 내가 요만큼만 가져도 굉장히 잘 살았는데, 이런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구요. 그러니까, 경제 토대가 있는 상태에서 문화적인 교류도 해 갖고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제가 보는 견해겠

어요.

남북 통일에서 연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아직까지 보면 북한과 흡사하면서 또 한국하고도 흡사하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완전히 북조선과 흡사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성격 다 띠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북조선도 알면서 한국도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간단히 말하면, 저도 한국 기업에 한번 들어가 봤고, 저의 누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한국 기업에 취직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조선족 관리자들이 한국 사람 기업 관리와 충돌이 잦았어요. 한국식의 자본주의 방식으로 조선족을 연구하고, 조선족은 중국에서의 국위기업 그런 식으로 관리하니까 관리 모순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맹목적인 조선족에 대한 신임, 이런 것 때문에 회계를 맡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국 기업에서 돈 갖고 달아나던가... 이런 식으로 많은 문제 생겼어요. 하지만 이제 조선족이 한국 어느 정도 아니까, 또 북조선도 어느 정도 아니까, 그 안에서 관리자 직을 맡게 되면, 그 회사 운영이 어느 정도 순환된다는 거예요. 북조선 사람들은 지금까지 남쪽을 적대관계로 맺었어요. “너네 미국 괴뢰군이다” 그러니까 조선족은 신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족에게 의사전달하고, 한국도 조선족을 통해 의사 전달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21세기 남북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에요. 단지 경제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에 앞서서 한국에 있는 더 많은 단체가 조선족 사회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조선족 사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외동포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역할 개관에서 살펴보았듯이, 재중동포인 박군도 해외동포 특히 조선족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조선족 사회는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오다가, 한·중수교 이후 한국과 교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두 사회를 매개시키고, 절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동포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겪었고,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시행착오를 겪

어왔기 때문에, 통일 후에 남북한 주민이 직접 부딪히면서 겪게 될 혼란을 그 동안 남한 사람들이 조선족과의 접촉에서 빚어졌던 부작용들을 통해 예견하고 그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북한 경제를 끌어올리고, 북한 주민이 경제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갖게 하는 데 조선족이 기여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남한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기 힘든 상황에서 연변 등 조선족 사회에 한국 기업들이 투자함으로써, 조선족의 대북 투자 잠재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족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데도 한국에서는 중국동포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로 조선족은 한국에 돈을 벌러 오고 한국에 불법 체류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앞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과의 경제 교류 및 개방에서 조선족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김정일이 상해 방문했는데, 신의주를 대외 개방하는 것, 중국식 개방한다는 것이 조선족에게는 유리해요. 조선족 돈 많은 사람들 많아져서 신의주 개발에 들어가서 또 다시 무역 시장을 개척해서 그러고 나면 신의주가 성공한다 할 때는 북조선 사회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중국처럼 나중에 사회주의 체제하에 자본주의 경제가 실시될 수도 있고, 그것이 통일의, 하나의 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오직 경제로서 먼저 발전시켜 갖고, 그래야지 사람들의 의식이 트이지, “아, 이제 우리는 김정일만이 아니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 갖고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래에 있었던 김정일의 중국방문에서 언급한 신의주 대외개방은 북한 사회에 새로운 개방바람을 불게 할 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보였다. 특히, 이 개방을 선도할 주역으로 조선족을 꼽기도 하였다. 여기서 조선족이 북한에 투자하고 북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남한측의 협조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남한의 기업이 조선족 사회에 투자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동포 학생들이 한국의 선진 기술을 배워서 조선족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일 예로, 연길시

서기 등 간부급 공무원들이 기술 및 투자 자문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대학교 등 주요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동포 학생들을 모아 연변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좌담회를 서울대에서 개최하였는데, 이들은 여기서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선진 과학 기술을 배우고 한국 투자자를 많이 유치해서 조선족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을 당부하였다.⁵¹⁾ 이처럼 중국동포의 통일 과정에서의 기여는 단지 이념적으로 고국 혹은 한민족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차원에서 뿐 아니라 고국과의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이해를 구하고, 거주국 안에서의 경제적 실리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질 것임을 암시한다. 즉, 이들이 한민족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통일과정에서 주체적인 참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고국 및 거주국 사이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체로서 통일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VI. 모국관 및 민족의식

남북으로 고국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에서 해외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조상의 나라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며, 민족의식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인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들이 마치 한국이나 한국인에 당연히 귀속되는 것처럼 여기고, 남한의 통일 정책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외동포들

51) 연변 조선족 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전적으로 한국의 협조를 얻는 것에 대해 반대의 의견도 있다. 예컨대, 한국의 한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여학생은 조선족들이 너무 자치주 내에서만 생활하고 더욱이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서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 사회 안으로 진출하는 데 장애가 되기 쉽다고 지적한다. 조선족들은 자치주 안에서 조선어를 쓰며, 조선어 교육을 받으며, 심지어는 중국어를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연변 과거대 출신 학생들 중에서도 중국어를 못해서 한국 기업에 취직하는 학생들도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내의 조선족 자치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으로부터 지원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의 노력으로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조선족 불법 체류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같은 민족’이라 하여 무분별하게 한국 정부에 기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 모국개념은 주재국의 정치이념이나 외교관계 혹은 해외동포의 개인적인 가족사나 이념지향에 따라 남한과 북한에 대한 친밀도가 달라질 수 있다.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모국'이나 '민족'에 대한 의식적인 반추가 없을 수도 있다. 박군은 모국과 민족에 대한 의식 형성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모국이나 민족에 대한 의식이 없이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국동포들은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남한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중국 시장경제 개방과 한중수교 등을 거치면서 미제와 괴뢰로 대표되던 남한의 위상은 새롭게 동포와 고국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제가 한국이라는 거,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를 알았을 때는 1988년 올림픽 개막식 볼 때 알았어요. 개막식 보기 전 날도 몰랐거든요. 그냥 남조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북조선 만화책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보면 이승만 괴뢰군이고 그런 그림책들이 많았고 미국애들은 코 크고 남조선은 전부 괴뢰군들만 살고 있고, 사회가 굉장히 어둡고, 이렇게 밖에 인식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올림픽 개막식 때 이것이 과연 한국이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어요. 그래서 연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떠들고 다녔어요. "저게 한국이다, 저게 한국이다." 그래 갖고 사람들 막 들뜨고, 그래서 그 때 한번 사람들 혼란 시기 겪었다고 생각돼요. 그 다음부터 차츰차츰 한국 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 돈 많이 벌게 되고 그것이 계기 됐어요. 그치만 단지 장사하고 돈 많이 벌고 경제적인 도움 받지 그 사회에 대한 연구나 학자들도 많이 없었어요.

조선족 사회는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국경을 넘어 왕래도 이루어졌다. 박군도 북한을 방문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박군의 어머니는 소학교 교사였으나 중국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 직업을 포기하고 장사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연변에서 의류를 사서 북한에 갖다 파는 장사를 시작하였고, 박군도 엄마를 따라 소학교 4학년 때 북한에 가서 체류하기도 하였다. 도문을 통하여 북한에 건너가게 되었는데, 기억나는 것은 덕

을 게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북한으로 갈 때는 항상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야 했고 가서 체류하는 집에도 돈보다는 현물, 특히 쌀을 주면 좋아했다고 했다. 기억나는 것은 북한에 머물 때, 체류하는 집에 딸아이가 있어서 박군의 어머니가 사탕을 주었는데 주인 집 딸아이의 엄마가 사탕을 반으로 쪼개서 반만 먹고 반은 나중에 뒀다가 먹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반찬도 김치와 고추장뿐이었고, 아이스크림을 팔기에, 사먹었더니 물에 소다 탄 것을 얼린 것이라 맛이 없어서 한 입 배어먹고는 뱉어버렸다고 했다.

사회주의 이념 지향적 태도에서는 북한 사회의 경제적 실상이 어떻든지 간에, 북한 사회가 바람직한 모습이고, 남한은 돈을 가지고 있을 뿐 미제 괴뢰도당이었던, 이제는 남한의 대중, 물질 문화가 조선족 사회에 파고 들어 자리잡게 되었다. 연변에 노래방, PC방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노래가 있으면 다음날은 바로 연변에서 “똥다”고 했다. 또 한국에서 유행하는 신세대 댄스 가요나 유행하는 스타일이 선호되고 있다. 또 다른 중국동포 여학생도 한국의 경제와 대중 문화가 유입되면서 북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북한의 경제 위기와 탈북자들을 보면서 북한의 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게 되었다고 한다.

특별히 모국에 대한 의식이 없이 북한 사회와 친밀하게 지내왔던 중국 동포들은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고 한국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모국과 민족에 대한 의식이 생기고, 모국 선호도도 바뀌게 된다.

옛날 사람들은 북조선을 모국이라 했는지 남조선을 모국이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때는 북조선과 많은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고국이요, 모국이요” 하고 그것이 사회에서 민족 문제까지 되기까지는 한·중수교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전파했다고 생각돼요. 제가 한국 오기 전까지만 해도 연변 사회에서는 우리 고국은 한반도다, 남쪽이다, 북쪽이다, 이렇게까지 없었어요.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사람들 사상이 완전히 중국화 됐거든요. 오직 우리는 당을 따라서, 그리고 항상 감사 발표할 때, “당의 령도 하에서 이렇게 잘됐다”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 이념이 팽 박했어요. 학생들도 처음에 배웠

을 때, 공산당의 영도 하에 잘살고 어찌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런 식으로 그런 사상이 꼭 잡혀있어 가지고 고국이나 민족관 개념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특별한 민족 연구 뭐 이런 사회학자들 제외하고는… 족보도 문화혁명시기에 다 타버렸거든요. 홍위병들 다 뺏어가 버리고 태워버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민족 관념이 없었어요. 한국 갔다오신 분들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분들도 자꾸 중국에 오면서 “그래도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누나 (연변)과기대 다녔거든요. 그때 누나 동아리 해 갖고, 한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함께 광청 지방에 내려가서 봉사활동을 했대요. 처음에 가보니까 초가집은 초가집대로 있고 소울안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보고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대요. “와, 이거 우리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딱 감동돼 갖고 눈물 흘리셨대요. 그거는 농촌이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때, 우리 민족이라고 관심해 주는구나. 그 때도 우리 민족이라고 조금 조금씩 인식했대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한민족이다, 우린 꼭 뭉쳐야 된다” 그런 식으로 자꾸 전수해 주고, 그 영향으로, 우리가 민족이라는 개념 갖기는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받았다고 봐야 돼요.

북조선은 뭐냐하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어찌구저찌구…” 똑같은 거거든요. 체제가 다르지만 민족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의 영도 하에 어찌구저찌구, 거기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 어찌구저찌구… 민족이랑 흡사해요. 사회주의 체제가 중요하지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위에서 보여지듯이 민족 및 고국에 대한 의식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새롭게 거듭 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민족 개념에 대한 의식은 한국 사람들의 영향으로 생긴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동포들은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으로 민족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없었으며, 당의 지도노선을 따르기 위해 급급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사람들이 중국동포 사회를 방문하여 ‘우리 민족’이라는 정서를 불러넣었던 것이다. 특히 연

변에 가서 '우리 말'과 '우리 문화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하거나 연민을 보내며 '한민족임을 자각시켜왔던 것이다. 이는 물론 민족주의 의식을 공유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조선족의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눈물어린' 민족정서의 감정 표출은 받아들이기에 어리둥절한 것일 수 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한국 사람들에게 의해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에서 고생하면서 모국의 말과 문화를 지켜나가는 불쌍한 동포들의 삶"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한 중국동포 여학생은 지적한다. 중국은 '남의 나라'가 아니며, 조선족들은 중국에 와서 중국에 기여했고 그 대가로 정당하게 자치주를 얻어 삶의 터전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한다. 더욱이, 한국 사람들은 종종 민족과 국적의 개념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한민족의 경우, 거주국의 국적을 지닌 그 나라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다. 즉, 해외동포가 동일 민족에 속한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남한에 귀속시켜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koreanchinese 홈페이지 토론방에서 어떤 한국인이 일본동포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아 '우리 민족'이라는 동일시를 하게 되지만, 중국동포들은 한국 국적이 아닌 중국국적을 가진 "중국인이라고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을 느낄 수 없는 "외국인"이라는 의견을 폈는데, 그에 대해 한 중국동포가 다음과 같은 반론을 폈다. 이는 단일 민족 국가의 국민으로서 한국인이 가지기 쉬운 국가(국적)와 민족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잘 지적하고 있다.

국적이 곧 '민족이고 동포'하는 논리는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민족은 혈연이고 문화공동체이지, 국가와 이코올 관계가 아닙니다. 뭔가 헛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도 않고, 한국말을 못쓰는 동포들이 많습니다. 그중 다수는 점점 자신의 조국은 현지이고, 조상의 고국은 '조선', '고려'라는 사람들이 늘어갈 겁니다. (일본은 특유의 배타성 때문에 '조국'이기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럼 그들은 모두 다 동포로서 대접해줄 필요가 없겠네요. 굳이 한인3세니, 교포2세니 이런 말하는 것도 언어도단이구요?

민족과 국가는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곧 한민족이 되고, 한국민이 되는 한국상황과는 다른 동네가 중국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한민족의 일원이 이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저 건너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갖고, 또 저 너머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갖고, 또 이 옆에는 '일본국'의 국적을 갖고, '우즈벱'의 국적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은 '민족의 동질'을 말하는 것이지 속해 있는 국가 즉 조국이 같아서가 아닙니다.

… 님의 분류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우리말을 할 줄 아는 사람만 '동포'가 되는 건가요? 그런 편협한 시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살아보지도, 보지도 못한 '고국'을 '조국'으로 삼으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그 '고국'은 지금 하나가 아니라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조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고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민족과 국가를 헷갈리지 마세요.

해외한민족은 국적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외한민족을 지칭할 때 “한국사람이나, 아니냐”를 따지는 경우가 많다. 다민족 국가로서의 경험이 없는 한국인들은 국적과 민족 구성원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가 지구화되고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이주가 많아지면서, 민족 개념과 국가, 국적 개념의 테두리는 점점 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민족국가의 지리적 경계가 점차 벌어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동포들의 고국에의 개입도 정치, 사회, 경제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재외동포는 한국국적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국과 여러 가지 형태로 관련을 맺을 수 있으며, 한민족의 향방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제3자적 위치는 분단된 남과 북의 교류를 매개하는데 여러 가지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다.

VII. 결 론

이상으로 재중동포의 통일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연구 및 재외동포 모국수학생 중에서 중국동포 학생의 고국과 민족관 및 통일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자본주의의 전지구화와 함께, 교통 통신 등의 발달은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흐름을 증가시켜왔다. 특히, 탈냉전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흐름은 체제가 다른 사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교류를 촉진시켰다.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들은 재외동포는 고국을 떠나(uprooted), 새로운 사회에 정착함으로써 고국과의 관계를 끊은 사람들이라고 인식되었던 반면에 근래에는 해외동포들은 고국과 다중적인 관련을 지속시켜 나감으로써 민족 국가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근래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국을 망라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자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지역적으로 협소하고, 경제나 물적 자원이 확립되지 않은 한반도는 해외한민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해외동포의 역할은 주목할 만 하다. 통일과정에서 해외동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하다. 이산 가족 교류를 매개하거나, 학문적, 인적 교류를 추진할 수 있으며, 경제 투자를 하거나, 문화적, 이념적 완충지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재중동포 학생과의 면담에서 살펴보았듯이, 해외동포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통일과정에서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체제, 이념, 문화가 이질화된 남과 북이 충돌을 극소화하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과정을 경험하고 그 들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중국동포가 개입하여 두 극단을 매개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 재외동포의 통일과정에서의 역할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서 동포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의 고국이 무조건적으로 한국 혹은 남한이라고 귀속의식을 강요하거나, 중국동포에 대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사회로 박제화시켜 놓는다든지, 일종의 우월감을 가지고 불필요한 연민이나 '동정심'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재외동포를 통일 역량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의 본국에의 귀속 여부나, 현재의 국적 자체를 문제시하여 내국인이야 외국인이나를 따지며 배타시하기보다는 이들이 모국과 다중적으로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 네트워크와 역할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투자나 기술 자문 이외에도 개별 학생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의 역할도 잘 살릴 필요가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재외동포 모국 수학생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 사람이나 기업, 학교, 종교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재외동포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이러한 네트워크를 보다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하겠다. 즉, 현재에 실시되고 있는 언어나 민족 의식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개선시켜, 모국 수학생과 한국의 대학생들간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민족이나 통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 모국 수학생들의 비공식적 역할도 한국과 중국 동포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예컨대, 주제보자인 박군은 중국의 대학들을 한국어로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서 한국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며, 또 다른 학생은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중국어로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민족의식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고 민족 공동체 형성 및 통일 과정을 준비하는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추상적인 이념으로서 해외동포가 한민족으로서의 정통성을 간직했는지, 혹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정도를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에 대해 논하며, 이들이 통일과정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들이 해외 각 곳에 거주하면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다양한 적응력과 저력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국 및 그들의 거주국 모두에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가야 하겠다. 또한, 한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찾아내는 것 뿐 아니라 해외 한민족이 보유한 다양성을 아우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통일과정과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